논 단

21세기 임업과 독림가의 기능

마 상 규 / 임업기계훈련원장

1 한국임업에 있어서 21세기의 의미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다. 산림녹화는 임업이라는 산업을 하는데 있어 원료의 투입단계에 해당되며 제벌과 간벌이라는 가공단계(산지자원화)를 거쳐 목재와 공공서비스라는 상품이 생산되게 된다.

2000년까지는 제벌과 간벌작업량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이를 기술적으로 잘 가공(가꾸어)할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고급화 내지 고가화 시킬수 있다. 이와같은 가공단계가 성공이 되면 2000년대 임업의 질은 고급화 될것이며 비로서 기업적 경영이 가능한 임업이 탄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국민의 욕구는 더욱 강력하게 될 것이므로 공공 서비스상품(산림휴양, 풍치관광, 수원함양 등)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한국임업은 시간적으로 고가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단계에 있고 다목적 경영기법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2. 임업의 새로운 기능

사회의 발달에 따라 산지와 산림에 대한 요구도 변화되므로 임업의 기능도 이에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목재의 경우도 갱목과 펄프재와 같은 저질재가 아니고 건축, 가구용, 합판재와 같은 고급재의 요구도가 증대되고, 목재와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산림작업에는 새로운 직업인의 고용이 필요하게 되며, 산촌은 더욱 공동화되어 농임업에 종사하는 작업인들이 소도시에서 출퇴근 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필요하게 된다.

이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길은 국민들이 산림욕, 산림휴양, 사냥, 관광길로 함께 이용하는 길이될뿐 아니라 산채와 약초 야생동물 사육 등 새로운 산지농업을 위한 농촌주민의 작업길로 이용이 될 것이다.

깨끗한 인간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압박은 가중될 것이므로 수원함양, 온도조절과 공기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도 증가되는등 임업의 다목적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업경영은 끊임없이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이 되도록 임업 정책개발이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임업창조자로서의 독림가

임업은 벌채이용이 가능한 목재자원이 있을때 비로서 가능한 산업이다. 생산기간이 장기간이고, 고 가재가 생산되지 않는한 경제성도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종자를 파종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목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영세산주나 여유자본이 없는 산주가 개인자본을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등 임업을 창조시킨후 비로서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하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어기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있는 독림가들은 대부분 자기 희생자들이며 국토의 2/3나되는 토지공장을 기업화 시키는데 앞장서 있는 애국적인 개척자들이라 할 수 있다.

독림가들 이외의 산주들에게 협업체와 같은 경영 지원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는한 임업창조를 기대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일이며, 국유림의 경우는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 되지 않는한 기업적 임업경영을 기대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임업의 창조는 독림가에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임업경영의 독림가

임업경영은 목재와 공공서비스를 보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되어야 하므로 자원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왔던 독림가들이 이후로는 기업적 경영활동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독림가들이 임업을 경영할시 국내외의 목재시장과 국민들의 문화의식등을 고려하여 경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후 이에 알맞는 경영을 하여야 될 것이다. 예를들면 고급 가구재와 내장재로 가치가 없는 수종과 개체목을 가지치기하여 손해를 보는 일, 기름진 땅에 시장가가 낮은 침엽수를 식재하는것 등은 경영 목표없이 무계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는 산지와 산림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다양할 것이므로 용재생산 이외에 산지농업(산채, 약초, 야생동물), 사냥, 산림휴양도 고려하는 경영방법이 도입되어야 할것이며, 경영의 전문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뜻에서 우수한 임업경영자와 영림기능인의 고용도를 증대시킬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시대의 경제적 경영방법은 독림가들이 특별히 여유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한 시행착오 등의 시험이 내재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 기업적임업경영주로서의 독림가 지원

독림가들이 기업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 면적은 1,000ha이상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규모가 됐을시 경영담당자 1인과 5인 정도의 전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 개념하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임지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의 임업기업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가능하다면 1~2만ha규모를 경영하는 임업회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독림가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산지를 중심으로 협업경영구를 지정하여 국가지원 경영담당자의 경영지도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자기 산지와 산림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을 높혀주기 위해 임도 시설과 임업기계화의 보조와 지원, 최초의 자원조성비에 대한 보조와 지원, 생산재의 국내외 시장 개발 등도 검토하는등 독림가들의 산림을 기업적 임업경영의 핵단지로 경

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므로서 한국임업발전의 선진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것은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므로 2000년대의 독림가 정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 측면에서 본다면 국유림 경영을 위한 지원보다 값싼 방법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6. 21세기 임업의 좌표와 독림가의 협조

가. 현실의 문제

우리나라는 임업다운 임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고 특히 연간 목재생산량 0.2㎥/ha으로는 임업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인바 한국임업은 결국 임업부재, 또는 경영부재 시대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업행정은 산업의 발달에 발맞추지 못하는 전근대적 체재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으며, 임업의 경영조직은 대단히 빈곤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임업기술자들의 임업경영경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것 같다.

결과적으로 한국임업의 철학과 정책은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있고 임업경영을 위한 경영조직은 거의 부재 상태에 있으며 이를 이끌어 나갈 경영 인재가 부족하는등 어려운 실정에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소나무 단순림은 해충에 의해 죽어가고 국제시장에서 활엽수는 잡목으로 인식하여 버려두었으며, 대대적으로 조림해 왔던 인공림은 비적지 조림과 사후관리 부족으로 천연림으로 천이되는등 우리나라 숲은 과학적인 기술과 합리적인 경영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숲에서 희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생하고 있는 천연림과 적지조림된 인공림이 무럭무럭 잘자라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산의 토지 생산력이 선진임업국에 비해 오히려 양호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산지와 산림은 임업국이 될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임업의 현실을 맞이한것은 아무래도 임업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21세기의 임업좌표

앞으로 10여년후에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임업도 새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새로운 임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것이다.

우선 21세기의 산업사회에 알맞는 임업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하겠다. 이를 위해

- 산림자원화와 질의 고급화
- 임업노동의 생산성 향상(임도시설확대, 임업기계화, 노동환경개선)
- 매력있는 직업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현행정 기구의 조직을 경영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 사유림 산림행정조직을 사유림 협업경영 영림서 조직개념으로 개편
- 소극적개념의 통제와 기술지도 보다는 적극적 개념의 책임 경영 또는 경영지원 개념의 도입
- 영림 계획은 국가에서 공익과 산주의 이익에 상충됨이 없이 작성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수한 계획은 우수

한 경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임업의 창조와 경영을 위해 우수한 경영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산업사회에 맞도록 대학교과 과정의 개편.
- 경영 시범지의 조성과 책임 경영 담당자의 재훈련.
- 영림 기능인의 양성과 재촌 산주인 임업 후계자의 기술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후 임업경영의 기본 철학은 임업의 경제성과 생태성의 증대에 두어야 할것 같다. 이를 통해

- 고가 원목의 생산과 국민 고용도 증대.
- 공해없는 산지 농작물(산채, 버섯, 야생동물 등)의 생산
- 공익 서비스 상품(물, 공기, 풍치, 산림휴양)의 고급화와 국민에 개방하는 대책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국민을 위한 산림의 개방과 인식의 개선 수립과 추진
- 산지와 산림은 한국의 미래자원이라는 것을 경제각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안과 이의 적극적 실행.
- 국민, 중학교 교재에 임업관계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록하도록 노력하는 일 등이 남아 있다.

다. 독림가 협조

임업자본에 해당하는 목재가 산에 충분히 있다면 이를 베어 팔아서 임업의 희망과 꿈을 창조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의 산지와 산림에 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 줄때까지는 임업종사자들 모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21세기를 향한 임업 창조의 일익을 독림가들이 적극적으로 맡아주는것이 옳은 일인것 같다.

21세기를 향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림가의 희생적 협조하에 전 독림가들의 소유산림을 시범적 임업경영센터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임업의 길이 개척되어 나가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

◇ 회 비 납 입 안 내 ◇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 - 01 - 231375 한국독림가협회

○국민은행 : 827 - 01 - 0037 - 647 권 오 진

※ 입금하실때 송금자의 성명을 꼭 기재하셔야 정리가 잘 됩니다.